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제39호 [루계 제2138호]

주제 100  
(2011). 9

24  
토요일

음력 8. 27

##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김정숙녀사

국제사회계가

칭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향성을 지니시고 그이를 정치사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신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국제사회가 길이길이 칭송하고 있다.

인디아근로녀성주체 철학연구회 위원장은 김정숙녀사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민족의 태양이 신 김일성주석을 결사옹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반혁명적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

해방 후 새 조국건설의 날에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들어주시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세월이 흘러들던

시고 그이의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김정숙녀사의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매히고 주제사상연구소는 불례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숙녀사의 한생은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을 보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한생이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너사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늘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혁명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는 조선인민과 더불어 전설적 호위장군 김정숙녀사께서는 영생하고 계신다.

본사기자

을을 울렸다.

김정숙녀사께서는 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존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원쑤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달려들던 위기일발의 순간들마다 언제나 함蟆이 그대로 성세, 방패가 되시여 민족의 태양이 신 김일성주석을 결사옹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전사의 공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너사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의 전기 간 주석의 혁명사상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시비증상하는 자들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고 언급하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시기와

해방 후 새 조국건설의 날에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들어주시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세월이 흘러들던

위대한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 시고 그이의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김정숙녀사의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매히고 주제사상연구소는 불례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숙녀사의 한생은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을 보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한생이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너사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늘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혁명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는 조선인민과 더불어 전설적 호위장군 김정숙녀사께서는 영생하고 계신다.

본사기자

## 공화국의 력사는 이민위천의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신문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에 즈음하여 별개리아, 남아프리카, 이슬란드, 파키스탄에서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평양의 밤』 등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별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주체사상연구소조, 쏘카파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위원장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찾으신 혁명친구, 남아프리카공산당 응우말랑가주위원회, 남아프리카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현대성협회,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파키스탄민

족으로동자당, 로조련맹,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조선동지지파 키스탄 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별가리아 쏘카파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대리 마리야 안겔로바는 김일성주석께서는 20성상에 걸치는 펴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나라를 해방하고 1948년 9월 9일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승리으로 령도하시였으며 조선을 정복하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한 기초우에서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온호하고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에 즈음하여 9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남아프리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찾으신 혁명친구, 남아프리카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현대성협회,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파키스탄민

참으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60여년은 절두철민인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철저히 실현해온 이민위천의 역사이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장준아리나 할도르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화국은 창건된 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한 령도밑에 세상을 놀라우는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별가리아와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축전과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에 즈음하여 9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나흐드킨스끼 라보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공히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조선과 정체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고 있으므로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

주석께서는 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시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한 기초우에서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온호하고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쁘리아무르스끼에 웨도모스찌』는 위대한 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전국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제재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독창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혁사적 사변이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에 단독으로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높이 모시고 세계의 자주권을 선도하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본사기자

## 력사

경축행사 진행, 신문 특집

조선에서는 모든 조선과 정체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고 있으므로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

주석께서는 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시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한 기초우에서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온호하고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쁘리아무르스끼에 웨도모스찌』는 위대한 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전국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제재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본사기자

## 력사

경축행사 진행, 신문 특집

조선에서는 모든 조선과 정체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고 있으므로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

주석께서는 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시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한 기초우에서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온호하고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쁘리아무르스끼에 웨도모스찌』는 위대한 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전국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제재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본사기자

## 력사

경축행사 진행, 신문 특집

조선에서는 모든 조선과 정체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고 있으므로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

주석께서는 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시였다.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한 기초우에서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온호하고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쁘리아무르스끼에 웨도모스찌』는 위대한 주석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전국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제재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은 위대한 주석의 사건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1948년 9월 9일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공화국의 지도자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본사기자

## 력사

경축행사 진행, 신문 특집





극악한 반통일대결분자로  
악명 떨치던 혼인택역적이  
온 민족의 저주와 내외여론  
의 규탄속에 미친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피뢰파당의 대결정  
책의 파산이며 민족을 등지  
고 시대에 역행해온 반역아  
의 비참한 말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택  
역적이는 자기가 재임한  
2년 여세월이 『남북관계에  
서 격동의 시절』이였다는  
것이 『진실된 통일』이 아니  
였다.

### 1. 민족의 통일념원을 무참히 유린한 죄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  
언과 10.4선언은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경이고 리정표한  
남조선 각계층의 통일행  
사에 한 번도 얼굴을 내밀  
지 않았을뿐 아니라 북남공동  
행사도 하지 못하게 악랄하  
게 가로막았다.

그러나 반통일대결의식이  
풀수에 찬 혼인택역도는 처  
음부터 혁사적인 북남수뇌상  
봉과 북남공동선언을 터무니  
없이 비방하고 부정하는데  
얼을 윤웠다. 지어 북남공  
동선언에 진수인 『우리 민  
족끼리』의 리념을 『배타적  
민족주의』로 중상모독하고  
6.15공동선언을 『용공리적  
문서』로 매도하며 『폐기』  
해야 한다고 쳐쳐렸다.

### 2. 반통일대결정책을 조작하고 추진한 죄

혼인택은 반통일대결정책  
으로 악명 떨친 『비핵, 개  
방, 3,000』의 직접적고안자  
이고 가장 악랄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다.

『비핵, 개방, 3,000』은  
북을 『핵포기』와 『개방』  
으로 유도함으로써 『흡수통  
일』을 실현해보겠다는으  
로써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겨레의 한결 같은 규탄배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택  
역도는 허황한 망상을 추구  
하면서 반통일대결에 미쳐날  
뛰었으며 『원칙고수』니,

『비준동의안』을 상정시키  
려 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  
하였다.

농업파란, 농민들의 생존  
권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국  
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을 거친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

# 천하역적 혼인택의 반통일죄 행록

뛰어 하는 역겨운 케번을 늘  
어놓았다.

여도의 망발은 그가 얼마나  
철면피한 대결광신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  
국은 천하역적 혼인택의 반  
민족적, 반통일적 대죄악을  
알리기 위해 이 죄행록을 발  
표한다.

### 3.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죄

혼인택은 6.15이후 활성  
화되어온 북남당국대화를  
하루아침에 모조리 중단시  
켰다. 그는 『북에 끌려다니  
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  
결상태에 둘 각오가 되어야  
다』는 독설을 입버릇처럼  
궤적하면서 우리의 성의있  
는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  
련된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  
련한 실무접촉과 금강산관광  
회담, 북남적십자사실무접촉  
과 군사회담, 백두산화산공  
동연구를 위한 실무접촉 등

그는 명색이 통일부 장  
관이였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발표기념일에 즈음  
한 남조선 각계층의 통일행  
사에 한 번도 얼굴을 내밀  
지 않았을뿐 아니라 북남공동  
행사도 하지 못하게 악랄하  
게 가로막았다.

북남공동선언들에 서명한  
남조선의 두 전직 『대통령』  
을 모함하고 박해하여 죽음  
으로 몰아간 장본인의 하나  
도 바로 혼인택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  
고 그 행위를 가로막아나서  
으로써 민족의 통일념원을  
무참히 짓밟은 혼인택역도  
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엄중한 반민족적, 반통  
일적범죄이다.

그는 2009년 북남교육자  
대표자회의, 북남녀성대표자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  
본부부대표단과 남조선  
남조선여성단체 대표들이  
길로 동족사의 접촉과  
례왕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북남관계를 전면질식상태에  
몰아넣은 혼인택의 반인륜  
적 죄악은 동서고금에 류례  
를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서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저주를  
받고있다.

5.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죄

금강산관광은 민족의 통  
일원을 반영하여 우리와  
남측의 현대사이에 진행해  
오던것으로서 온 겨레의 적  
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  
았다.

그리고는 『3대 조건』이  
라는 것을 내걸고 금강산관  
광캐리를 한사코 외면하였  
으며 우리가 그에 대해 최고  
의 수준에서 담보해 주었음에

6. 북남협력과 교류를 차단한 죄

혼인택역의 국악한 반통  
일정책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교류를 전면차단시킨데서 더  
욱 뚜렷이 드러났다.

일찌기 『대통령직인수위  
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서기로 혼인택은  
『폐기』니 뛰어 혼인택과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극  
력 반대하였다.

현인택 역도의 책동으로  
선행 『정기』에 부터 추진되  
여온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 북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회 회의를 비롯하여 10.4선  
언리행을 위한 사업들이 다  
파탄되였으며 종내 협력교  
류사업이 완전히 폐문되고  
말았다.

특히 혼인택은 『천안』호  
사건을 계기로 『5.24제재  
조치』를 선포하여 룩로뿐

도 불구하고 『인정 할수 없  
다.』느니 뛰어 하며 악랄하  
게 도전해나섰다.

현인택은 남측의 금강산  
관광업체들이 국제관광에 참  
가하여 그들의 의사에 맞게  
새 산자리 문제를 해결할때 대  
한 우리의 성의있는 요구와  
노력을 대해서도 훼방을 놓  
였다. 이로 하여 혼인택역도  
는 6.15이후 북남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유일한 통일  
부 장관으로 내외의 규탄을  
받았다.

결국 온 겨레의 기대와 내  
외의 관심속에 『화해와 협  
력의 우동자』로 불리우며  
10년동안 진행되던 금강산관  
광은 파국에 처하였다. 그로  
인해 입은 피해는 남조선기  
업들의 손실액만 해도 수억  
US\$에 달한다.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  
광길을 차단하고 남측 기업  
들의 명줄을 끊어매놓았으며  
민족의 기쁨을 애타간 혼인  
택역도의 죄행은 준엄한 심  
판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범  
죄이다.

### 7. 제제대결과 전쟁을 추구한 죄

북과 남이 서로 상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  
중하는 것은 7.4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천명된 북남  
관계발전과 통일의 기본원  
칙이다.

그러나 민족사의 침략적  
인도주의 협력사업에 이르기  
까지 모든 문제를 미국상전에  
『공조』라고 공연하며 북남관  
계와 다른 나라들의 지원사  
업마저 방해하였다.

나중에는 남조선 『국회  
의원』들의 개성공업지구방  
문길을 가로막고 여당대표의  
『리산가족상봉재개』주  
장을 무살하여 『국회』와  
여권내부에서까지 규탄대상  
이 되었다.

또한 『핵문제』로부터 인  
도주의 협력사업에 이르기까  
지 모든 문제를 미국상전에  
『공조』라고 공연하며 북남관  
계와 다른 나라들의 지원사  
업마저 방해하였다.

현인택은 미국의 침략적  
인 『대량살상무기산신방지  
구상』과 『미씨일방위체계  
구축』에 남조선이 참가해야  
한다고 괴리를 돌구었는  
가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한연기를 집요하게 주장하  
였으며 미국산 미친소고기  
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데도 앞  
장에 섰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  
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한미동맹 강화』에만 미쳐  
남뛰는 혼인택역도를 가리켜  
『희세의 특동친미주구』라  
고 규탄하면서 차라리 미국

이

현인택은 마땅히 혁사의  
심판대에 매달리고 규형에  
처해져야 할 가장 추악한 범  
죄자이다.

그런 자가 아직 일이 살아  
서 자신의 죄행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야 말로 결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산송장의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현인택역도의 수치스러운  
말로는 민족을 반역한자는  
결코 무사할 수 없으며 치욕  
과 파멸만 차례진다는 것을  
알고 보여준다.

민족을 등지고 겨레의 의  
사와 남편을 거역하는 반역  
아들은 시대와 혁사의 준  
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  
이다.

주제 100(2011)년 9월 20일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세력들이 까마귀 백로 흥보  
는 격으로 놀아대고 있는 것  
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세력들  
은 유산상속을 통해 남측의  
재산이 북에 들어가는 경우  
그들이 북의 경제 전설에 힘  
을 더해나갈 것을 막아야 한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슨  
『남북상속특례법』을 내놓  
은 것은 어떻게 하나 일심단  
결된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외부에서 허황하기 그지없는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들

고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 천 랑 이 총 은 라 선 경 제 무 역 지 대 (2)



## 라진항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해 알려면 라진항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평선너머로부터 파도가 위임없이 밀려와 부두를 때리는 항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황철남 라선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서두를 떴다. 동북아시아지역은 공화국과 중국의 동북3성, 로씨야의 원동지방, 봉골, 일본 등 광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는 수억명에 달한다. 이 지역 나라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면 잘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알록생산량



황 철 남

이년간 수천만에 달하고 콩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며 수백종의 약용식물, 100여종이 넘는 금속광물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등으로 하여 중국의 노란자위로 불리우고 있다. 로씨야의 원동지역에는 천연원시림과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 등이 있다.

이미 이런 유리한 조건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곳에 경제무역지대를 내오도록 하시였다고 황철남부위원장은 말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1991년에 선포되었으나 20년전의 일이다.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한다는 경제전문가들도 어제서 라진항이 중국무역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3호부두쪽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대초도와 소초도를 바라보았다.

이 두개의 섬은 라진항을 태풍과 큰 파도로부터 막아주는 자연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황철남부위원장은 거울에 바다물이 얼지 않아 사철 리옹할 수 있는 것도 라진항이다.

일본 니이가다항에서 네데를란드의 로페르담항까지 가자면 수에즈운하를 거쳐 해상으로 10 860mile(20 100km) 가는데 32일 걸린다. 그러나 라진항을 거쳐 로씨야의 씨비리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수에즈운하로선보다 거리는 2분의 1, 운행기일은 9일간이나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의 물동량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다롄항과 티엔진항을 통해 수송하고 있는데 라진항을 이용하면 천여km나 더 가깝다.

이와 같이 라진항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대륙의 물동량을 중계수송하는데서 가장 유리한 통로, 교두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유리한 조건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곳에 경제무역지대를 내오도록 하시였다고 황철남부위원장은 말하였다.

라진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도에 의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라진항에서는 중국국내화물의 중계수송을 위한 출항식이 진행되었다. 지

항의 장점이라고 하였다. 로씨야의 항들은 겨울 4개월동안 얼어 있고 여름에는 안개나 홍수로 하여 근 30일간 운영할 수 없는 리옹상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 라진항은 어느모로 보나 천혜의 항구인셈이다.

라진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도에 의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매 부두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철도선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중국과 로씨야의 철도와

금 라진항현대화사업은 중국과 로씨야와의 협조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현재의 3개 부두를 현대화한데 이어 4개 부두를 새로 건설하여 년간 화물통과 능력을 수천만t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무슨 철도선입니다?』

우리는 매 부두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철도선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중국과 로씨야의 철도와

이 중계수송의 중심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룩상통로도 같이 발달해야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었다.

현재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중국의 투먼과 편결된 투먼-라진철도선과 로씨야의 하싼과 편결된 하싼-라진철도선이 있다. 로씨야는 라진항과 두만강, 하싼을 통해 씨비리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광궤철도공사를 적극 다

그치고 있었다. 로씨야의 원동건설조립회사의 기사 뿐

쁘보 올라자미르 이와노비치는 올해중으로 첫 철차통파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도 우리와 함께 화물수송과 판광 등의 목적을 위해 라진항과 원정도로통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룩상통로가 완비되면 라진항을 통한 화물수송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와 철도공사장을 돌아보면서 각국의 화물들이 줄지어 라진항으로 모여들고 빠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물자수송통로라고 하면 수에즈운하와 빠마나운하, 싱가포르항을 들고 있습니까. 라진항을 비롯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항들은 머지 않아 그에 못지 않는 세계적인 물자수송기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신심에 넘쳐있는 황철남부위원장의 말이었다. 우리는 세계적인 항구로 전변될 라진항의 미래를 확신하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박금일

사진: 동장현

↑ 투자로 토론회 참가자들  
← 라진항의 일부

##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

### 회천발전소 물길굴공사 완공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으로 불리우는 회천발전소건설장에서 마침내 물길굴공사가 완공되었다.

지난 기간에는 이런 규모의 물길굴을 건설하는데 측량과 설계, 건설준비기간이 1~2년 걸렸고 작업경험에 만도 3년이 걸렸다고 한다.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어 완공되기까지는 보통 10년이 상걸렸다.

그러나 회천발전소건설자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내달려 수십km의 물길굴을 깊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회천발전소건설의 용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두해 전 3월 회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는 물길굴을 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앞당겨 끌낼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건설력량편성과 설비, 자재보장, 기계기구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러면서 공사가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련합지휘부와 현장지휘부에서 공사전반에 대한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각곳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물길굴건설을 다그쳐 끌어내기 위하여 착공의 첫날부터 속도전을 벌려나갔다.

각곳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물길굴건설을 다그쳐 끌어내기 위하여 착공의 첫날부터 속도전을 벌려나갔다. 암질조건에 맞는 천공, 발파방법과 합리적인 벽돌운반방법들을 창안하여 적극 도입함으로써

그들은 천연수립속에 배낭을 풀어놓기 바쁘게 가파로운 산중력의 암반을 깨어내며 개입구로 향한 도로와 회천로·통로의 건설장을 잇는 수백리 새 도로건설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새 도로건설을 단 12일 만에 끝내고 짧은 기간에 공사장 전구간에 전기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9년 4월 1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첫 발파를 하였다.

이들은 선군주의 기상을 만방에 펼칠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석수가 쏟아지고 봉락이 계속되는 불리한 속도에서 종단없이 굴진을 내밀면서 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암질조건에 맞는 천공, 발파방법과 합리적인 벽돌운반방법들을 창안하여 적극 도입함으로써

공사초기 하루에 몇 m정도밖에 굽진하지 못하던 개구들에서 보통 9m, 최고 14m를 굽진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하여 공사에 진입한지 1년 3개월만에 몇년이 걸려도 하기 힘들다던 작업경공진을 단 12일 만에 끝내고 짧은 기간에 공사장 전구간에 전기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9년 4월 1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첫 발파를 하였다.

물길굴공사는 회천발전소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회천발전소 물길굴공사는 완공된 기적적인 성과는 강성국가를 향한 대고조진군을 다그쳐가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 주고 있다.

본사기자

지난 9월 9일,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아침부터 전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와 절절한 그리움으로 차넘쳤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숭엄히 밟았을 때마다 얼굴마다 넘쳐나는 다함없는 흠토와 뜨거운 충정...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민족경계협력위원회에서 일하는 신춘우녀성을 만났다.

『공화국의 품이 없었더라도 저와 우리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화국의 품속에서 그의 부모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수여받고 나라의 어엿한 일꾼으로 한생을 빛내일 수 있었고 오늘은 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 있으니 하늘같은 그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지난 기간 금수산기념궁전을 보다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신춘우녀성과 그의 가정이었다.

한 해 전 어느 날, 본사기자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던 신춘우녀성은 많은 사람들이 기념궁전주변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뜨거운 지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도 모르게 그들 곁으로 다가간 신춘우녀성은 일손을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해마다 온 가족의 지성이 담긴 지원물을 데려온 충동을 받았다.

그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내이는데 온 가족의 적은 지성이나마 바쳐갈 것을 결의하였다. 얼마 후 정성껏 마련한 많은 판리도구들을 안고 기념궁전으로 향하는 그의 가슴속에는 이런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다.

그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제일가풍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신춘우녀성의 가족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언제인가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꽂다발을 드린 크나큰 영광을 지닌 시어머니 원정순녀성이 머느리의

한 해 전 어느 날, 본사기자

기특한 소행을 적극 지지하며 도와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온 헌신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장에도 신춘우녀성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는 해마다 온 가족의 지성이 담긴 지원물을 데려온 충동을 받았다.

그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제일가풍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신춘우녀성의 가족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선군시대 공민된 본분을 다해 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그는 새로운 평양번영의

가 창조되고 있는 만수대지구 살림집건설장에도 달려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을 안겨주고 땀도 흘리면서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얼마전 그는 오 가족의 지성이 담긴 지원물을 가지고 다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충정과 애국은 이 땅에 품은 우리 인민 모두의 삶의 원천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의 첫째가는 가봉이기도 합니다.』

기자와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의 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제일가풍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신춘우녀성의 가족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선군시대 공민된 본분을 다해 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그는 새로운 평양번영의

한 해 전 어느 날, 본사기자

화국의 사회주의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주는 사회, 이민위천성이 현실로 꽂고 인민들이 앞날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제도는 없다.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존엄과 공지, 그것은 선군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공화국은 평토대국도, 인구대국도 아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할 말을 다하며 제국주의자

들의 그 어떤 횡포한 압력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결코 수호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공화국의 담략과 배짱은 민족적공지와 존엄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선군이 있어 공화국은 자주의 성새로 빛을 뿐이 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가고 있다.

박원평

한 생을 참되게 살려는 사람은 누구나 값높은 삶을 지향한다. 값높은 삶은 인생의 가치를 표현하며 값있을 사람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질과 재능에 맞게 창조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침수지역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먼저 지어주고 생활용품도 그쳤던 것이다.

공화국은 또한 사람들의 창조적 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꽂아주는 사회, 이민위천성이 현실로 꽂고 인민들이 앞날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제도는 없다.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존엄과 공지, 그것은 선군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공화국은 평토대국도, 인구대국도 아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할 말을 다하며 제국주의자

들의 그 어떤 횡포한 압력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결코 수호해 가고 있다.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

